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  
경제학부 1년 휴학중  
(2023.8. ~ 2024.5.)  
전) 육군 (카투사) 병장 만기 제대  
개혁신당 충남도당 대변인

# 2004년생 천안시의원 후보

시의원은  
4 손승범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천안시의회의원선거 (천안시다선거구)

##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4	개혁신당	손승범	남	2004.04.09. (22세)	정당인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Arts & Sciences 학부 휴학중 (2023.8. ~ 2024.5.)	(현) 개혁신당 충남도당 대변인 (현) 개혁신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909,177	368,241	해당없음	부:1,263,411 모:2,277,525	해당없음	육군 병장 (만기전역)	-	-

##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11,200	0	0	없음
후보자	11,200	0	0	
배우자	해당없음	-	-	
직계존속	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직계비속	해당없음	-	-	

## 4. 소명서

전역하자마자 출마한 만 22살,

2004년생 저 손승범이 출마를 결심한건 아직  
군생활 중이던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출타를 나와 3번 버스를 타려고 했던 저는 무더위와  
30분이 넘어가는 기다림 끝에 속으로 내뿔었습니다.

“이제는 한계야.”

그리고 그날 저는 다니던 미국 인디애나대 복학을  
미루고 전역하자마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  
넘게 바뀌지 않은 천안버스. 기다린다고 바뀔거라  
더 이상 정치에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큰 정당보다 돈도 조직도 권력도 인맥도  
부족한 저에게 선거 과정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일  
6월 3일

시의원은  
손승범 4

# 도전과 돌파

첫 번째 도전은 제 자신이 불편했던 것들을 제외하면 다른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혼자서 **AI를 활용**, 주민 참여 불편제보 플랫폼 **reform-chungnam.kr**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제보도 관심도 받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천안 불편 제보를 받는다며 꾸준히 올린 영상, 게시물들이 총 **170만 조회수**를 넘기며 지금까지 천안에서만 **100개 넘는 제보**를 모았습니다.

**시의원은  
4 손승범**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5월 29일 5월 30일**

이렇게 늘어나는 수치에 저는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 100건**이 주민들이 각자 삶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불편을 견디다 내뱉은 한마디였을지 가늠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적어준  
이토록 많은 제보들에 도저히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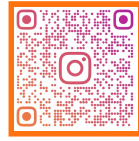
이준석 대표와 손승범 후보

제 개인적 불편을 바꾸자고 시작한 선거는 어느새 이 수많은 주민들의 불편들과 치르는 **큰 승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희망을 품고 저는 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일  
**6월 3일**

**시의원은**  
**손승범 4**

# 목소리와 침묵



천안 변화 영상  
확인하기

저는 **천안 버스**에 대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왔고 주민들의 반응도 컸습니다.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정동과 봉명동**에서 가기 힘든 불당, 성성, 쌍용, 신방, 청수, 단국대 같은 지역들을 바로 잇는 **버스 노선 신설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도 내왔습니다.

불공평하게 늦게까지 지속되는 **봉정로 주정차**

**단속 시간을 정상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승범 천안시의원 후보, 천안 시 주정차 단속시간 형평성 제기



뉴스티앤티

손승범 천안시의원 후보, 천안시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방치 직격

4일 전

충청일보

천안시의원 손승범 후보 "재개발 핑계로 학생 안전 외면하나"

위험천만하게 초등학생들이 차도를 걸으며 등교하는 것을 보며,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목소리도 냈습니다.

시의원은  
4 손승범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5월 29일 5월 30일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거철이니 분명 저와 함께하는 주민 목소리에 다른 큰 정당도 반응 할거라 기대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면 행정도 달라질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대 양당은 가만히 있어도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착각을 깨야 천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께 약속합니다.

“한 표에 집앞부터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 seungbeom2004@gmail.com  
@sonseungbeom2004  
@손승범2004

배경 사진:  
손승범 천안 버스 노선 공약

지방선거 본투표일  
6월 3일

시의원은  
손승범 4

문화동 성황동 봉명동  
성정동 와촌동

시의원은  
4 손승범



시의원 후보에게 찍은 한 표가  
집 앞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사전투표 5/29(금) ~ 30(토) 본투표 6/3(수)

집 앞을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한 표가 필요합니다.

천안시의원 후보

4 손승범

개혁신당